

불자 세상보기



최용준 한국교수불지연합회 명예회장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2015년 2월26일 간통죄에 대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병합선고기일을 열고 7대2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세간에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설설 래중이다. "패락이 현실을 이긴 것이다", "희대의 카사노바도 재평가 받아야 한다" 등 심지어 패락을 추궁하기위한 동호인 사이트도 생기고 있다. 간통죄 규정에 대한 역사는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고, 현대에서는 1953년도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위한 죄목 이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간간 1990년, 1993년, 2001년 세차례 모두 합헌결정이 있었으나 14년만에 헌법에 규정된 법정범죄에서 삭제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식이 변했고 혼인과 가정의 유

지는 형벌로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 그리스, 이슬람국가 및 미국의 몇 개주를 제외하고는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라는 것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가 헌재위헌결정으로 폐지되고 간통죄까지 없어지면서 성매매를 제외하고는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영역에서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결혼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물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을 해서 더 행복 하다고 말한다. 반면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보이면서 독신으로 살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간혹 독신론자들이 결혼하면서 결혼예찬론자가 되기도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간통포함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상담 연도별 건수를 보면 남성은 2008년 78건, 2013년 190건, 2014년 167건이며, 여성은 2008년 603건, 2013년 1022건, 2014년 893건이다. 검찰은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1심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가 불

가능한 함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무죄 구형을 하고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전과기록을 지울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한 본인의 소속기관에서의 징계등 사적불이익은 구제되지 않는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나게 된 그 위법성에 대한 책임 까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성문란, 패락추구를 부추키는 것은 아니다. 부부일방의 부정으로 인한 가족해체라는 불행은 자초케 한 유책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더 엄하게 물어야 한다. 개인의 사적자치권을 강화해 준만큼 그 책임은 더 무거워져야 하는 것이다. 불자가 지켜야 할 신도 계율 중 5계와 수계자가 지켜야 할 10계행 중에 '사를 하지 말고 음란 하지말라'는 계율이 있다. 또한 불교 경전에는 부부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설파하기도 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고 위엄이 있어야 하며 가정이 궁핍하지 않도록 경제적 책임을 지며 아내가 타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옷과 장신구를 사주고, 의심하지 말고 집안 일을 모두 일

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내 역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남편이 밖의 일을 잘 할수 있도록 보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소와평을 하고 타인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어느 정도 유지 될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호 예를 갖추어야 하며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다. 마치 길을 건다가 빨간불신호등이 켜 있으면 멈추고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길을 건너는 이치와 같다. 누가 일일이 간섭하고 제어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 속에 함께 노력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간통죄의 폐지는 형벌 상의 일이고 부부상호간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민사상으로는 그 책임이 가중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결혼, 성에대한 관념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정의 가치와 그 존엄성은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 넘은 개신교의 불교 '흠집내기'

3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역명에 대한 개신교계의 불교 폄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봉은사가 문화재 사찰이 아니라라는 점을 들어 봉은사역 역명 지정 철도를 요구했고 서울시에 대한 행정불복종 운동까지 예고했다. 여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국민일보'는 봉은사가 친일 사찰이었다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던 불교계도 대응에 나서기도 "일부 개신교 단체와 언론의 무분별한 행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봉은사가 역사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개신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신라시대 창건돼 1200년 간 지켜온 봉은사는 조선시대 승과가 시행된 곳으로 서산·사명사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의승군의 중심역할도 했다. 친일에 대한 매도에도 할 말은 많다. 불교, 개신교, 민족종교 등 많은 종교인들이 독립

을 위해 싸워왔던 만큼 친일 행적을 가진 종교인들이 많은 것도 저간의 사실이다. 사찰령은 일제 탄압과 강제로 이뤄진 한국불교로서의 뼈 아픈 상처다. 당시 개신교는 어쩔까. 1938년 9월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일본 신사 앞에 참배한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직후 이뤄진 일이다. 이에 앞서 한국 장로교는 1938년 2월부터 8월말까지 당시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신사참배를 전격 결의한다. 친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하는 자신들의 교리에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가. 최근 개신교계의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한국 사회가 종교에 요구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다. 사회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도 바쁘다. 개신교계는 이 같은 무분별한 폄훼를 빨리 거두고 자기 자리에서 종교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답골 무료급식은 이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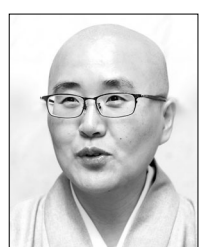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답골공원 인근에 원각사 무료급식이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다. 1993년 원각사 주지 보리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무료급식은 22년이라는 세월동안 종로 답골공원의 명물이었다. 단돈 1000원도 아쉬운 어르신들은 매일 12시면 답골공원 인근 골목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원각사'로 모여들었다. 취재 중 만난 어르신은 "서울 사대문 안에 이 정도 수준의 밥을 매일 무료로 주는 곳은 없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런 원각사가 3월 2일자로 마지막 급식을 진행하고 문을 닫았다. 3월 8일자로는 임대차 계약도 마감됐다. 현재까지 운영을 책임졌던 주지 보리 스님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사찰을 돌볼 수 없어 문을 닫게 됐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은 마지막까지 원각사를 지키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진행했다. 원각사 무료급식은 정부 지원없이 기부금

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원각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봉사팀은 30여개로 스님이 종로 답골공원에 서 어렵게 무료배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동참했다. 스님의 원력과 봉사자들의 마음이 합쳐져 20년 무료급식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다. 부처와 보살은 중생과 자신을 동일하다고 관찰하고 대자비심을 일으킨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다.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공덕을 짓는 일이기도 하다. 원각사는 허기에 지친 어르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심터가 됐으며, 자발적 봉사로 공덕을 쌓는 동체대비의 현상이었다. 주위에 개신교계 무료 급식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각사와 같이 연중무휴로 운영하지는 못한다. 원각사의 원력을 이어받을 원력보살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언대 '카톡 왕따'에 대한 단상

최근 신종 학교 폭력으로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카카오톡 왕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체 토크방을 만들어 놓고 폭언 등을 일삼거나 참여를 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하는 것이다. 정부도 대책에 나섰지만 특별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SNS 왕따에 대한 불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카따' 예방 청소년 법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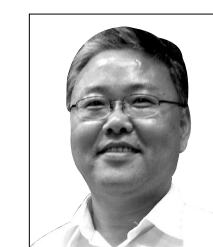
'카따'는 스마트폰 시대가 만들어낸 또다른 부작용이다. 카카오톡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고독감과 충격이 두 배에 달할 거 같다. 이 모두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이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 어린이들은 인과법을 배우지 못해 이런 일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나중에 그 상처를 내가 다시 받는다는 인과와 원리만 제대로 배운다면 이런 행위를 함부로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아이들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할 줄 알게된다. 또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인과법을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된다.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되어 '카따' 같은 슬픈 용어가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보사회 불교 윤리 가르쳐야"



요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신종 왕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왕왕 벌어지는 일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보사회 윤리를 인지시키고 가르치는 것이다. 정보사회일수록 주변사람들과 원활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하지만 SNS를 통한 각종 위해와 악성 댓글들은 이를 좀 먹는 행위다. 카톡 왕따와 악성 댓글은 일종의 언어적 악행이며 정보사회에서는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보편적 윤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매체를 통한 공격은 직접 상대방을 접촉해 공격하는 것보다 정신적 충격이 큰 악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법사, 사이버 법사도 필요하다. 엄지만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사량이 담긴 동체대비심이 있는 소로, 감화의 방편이 필요하다. 법회 이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고민을 들어줄 열정을 가진 법사와 스님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아힘사 과정으로 정서함양"



학생들은 '카톡 왕따'를 실제라 믿고 나를 따라다니는 눈빛, 목소리라고 느낀다.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면 배우자와 사별할 때 느끼는 수준의 고통이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학생들의 정서지능(EQ)이 부족할 때 생겨난다. 상대를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 자존감 결여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개발한 아힘사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힘사'에는 몸(身), 입(口), 뜻(意) 등 삼업을 정정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담겼다. 방과 후에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 워크숍, 학생 개인 감정코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개인상담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자존감 향상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와 교사가 몸과 마음을 다해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타박을 나간 부처님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주느라 타박을 포기했던 그런 마음으로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글쓴이: 해천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사 원할, 혈액순환 원할,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절,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탈취율 90% 1시간 >항균성 85% >대장균 감소율 83.6% >녹농균 감소율 86.3%.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A비취: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B비취: 수지처리 >C비취: 원석에 염색. *주문: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3 [논합]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